



11일 광주시 동구 내남동 용연학교에서 열린 제1회 '명사 초청 강연회'에서 장희국 광주시교육감이 이 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 학부모 10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교육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빛고을 혁신학교' 22개로 늘린다

장희국 광주시교육감 용연학교 특강 "교육비리 지금 끊어야"

'광주 빛고을 혁신학교'가 2014년 까지 초·중·고교를 포함 22개교로 늘어난다.

장희국 광주시교육감은 11일 광주시 동구 내남동 용연학교에서 열린 '명사 초청 강연회'에서 "교육비리 척결을 바탕으로 광주교육의 미래상을 새로 정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교육감은 용연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 학부모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강연에서 "날로 심화하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만이 미래를 대비할 인재를 만들 수 있다"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광주시민들이 나를 당선시켜준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교육의 답을 알고 있다"면서 "학생과 학부모·교사 모두가 힘들다고 이유는 차운 학교에 대한 책임은 학생들이 선물(?)로 나를 시험하는 일을 겪었다"며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장 교육감은 KAIST의 학생 자살 사건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이 등록금과 성적에 끝겨 죽는 일은 낙득이 되는 일이다"며 정부의 교육정책을 꼬집었다.

장 교육감은 부정부패 균형정책과 관련, "최근에도 한 학교에서 학부모

이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교육계 비리는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선자 신분 시절과 직원들의 승진심사 후 몇몇 사람들이 선물(?)로 나를 시험하는 일을 겪었다"며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장 교육감은 부정부패 균형정책과 관련, "최근에도 한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금품을 모았다는 제보를 받고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부적응 중학생 대안교육…매년 학부모 캠프 열어

■ 광주 용연학교는

광주시 동구 내남동에 있는 '용연학교'는 지난 2008년 9월 문을 열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을 구제하는 새로운 교육모델인 용연학교는 중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찍힌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 원적(소속 학교)을 유지한 채 졸업할 수 있게 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이다. 이 학교는 사실상 광주의 대안학교를 개척했다.

일반 학교의 교과과정에서 벗어나 주입식 교육이 아닌 현장 위주로 교육한다.

'교육은 학교와 가정이 함께 해야

한다'는 가치로 매년 2차례 교사와 학부모가 생활지도 방법을 찾는 '용연 부모 캠프'는 이 학교의 자랑이다.

11일 장희국 광주시교육감의 '명사 초청 강연회'도 특성화 교육의 한 과정이다. 명사들의 삶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일깨우기 위한 과정이다.

이 학교는 내년 3월 동구 내남동에서 광산구 신창동 교육연수원으로 이전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친정어머니 보니 꿈만 같아요"

광주 서구,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시스템 구축

"어머니, 보고 싶어요. 몸 건강 하길 계세요.", "올해는 꼭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 집에 오너라"며 "이렇게 화면으로 나마 어머니를 볼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광주 서구는 지난달 화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주여성들과 현지 가족과의 화상 상봉을 주선하고 있다. 화상 상봉은 이주여성들을 위로하고 현지 가족들에게 한국의 따뜻하고 경감 있는 모습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미겔라씨는 "한국에서 잘 살고 있지만 항상 엄마가 그립다"며 "이렇게 화면으로 나마 어머니를 볼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광주 서구는 정보화마을 대형TV, 웹 카메라, 스피커텐 등 전용장비를 설치했다. 이 서비스는 필리핀 어, 베트남어, 영어로 안내되며,

현지와 사전 약속이 된 상태에서 서비스에 접속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서구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은 지난해 말 현재 598명으로, 베트남 126명, 필리핀 48명 등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광고책자 만들어 수익금 대학 발전기금으로

조선대 총학생회

광주지역 한 대학의 총학생회가 학교와 인근 상가에 무분별하게 뿐만 아니라 대학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조선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학교와 주변 환경 가꾸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학 발전기금을

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올 2학기에도 배달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다.

총학생회는 상가들로부터 받은 광고료 등 수익금 총 276만 3500원을 최근 열린 총학생회 및 단과대 연합 출범식에서 전호종 총장에게 학교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조선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학교와 주변 환경 가꾸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학 발전기금을

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올 2학기에도 배달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